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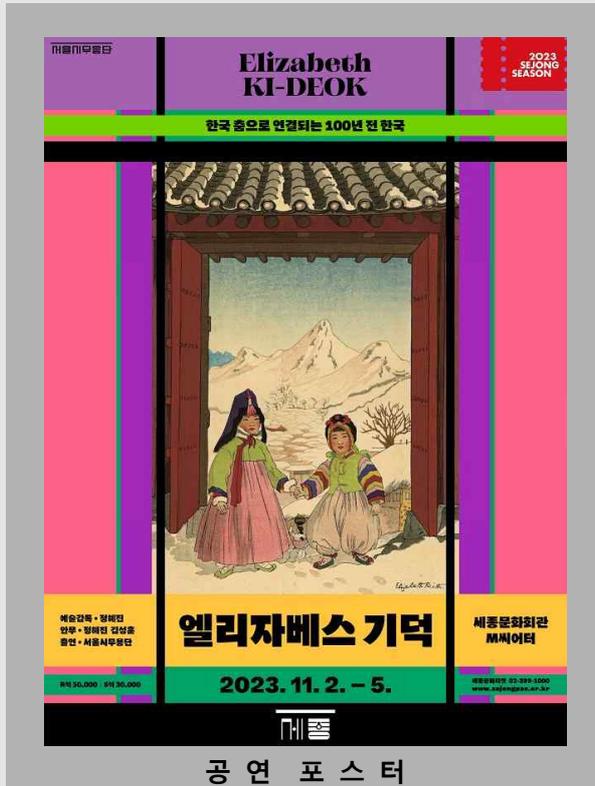
배포일 : 2023.9.14.(목) (총 7매)

	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화영 T.399-1140 M.010-9979-7977
		커뮤니케이션팀 담당	신대섭 T.399-1145 M.010-7153-6031
		공연제작1팀 담당	류성광 T.399-1618 M.010-9357-7143

# 100년 전 그림을 현대적 춤으로!

## 서울시무용단 신작 <엘리자베스 기덕>

2023.11.2(목)~11.5(일) 총 5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 영국 화가의 시선과 한국 춤으로 연결되는 100년 전 한국

- 100년 전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과 현대적 감각의 한국 춤으로 풀어내는 무대
- 한국을 사랑한 영국인 화가가 한국식 이름인 기덕으로 낙관을 변경하는 과정을 담아낸 무용 신작

### ○ 뉴욕을 홀린 서울시무용단(정혜진 단장)과 김성훈 안무의 재회

- 지난 7월 한국 무용 <일무>로 링컨센터 3회를 매진시키며 기립 박수 받은 서울시무용단과 김성훈 안무의 재회
-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동시대적인 연출과 현대적 안무가 결합된 하반기 무용 기대작

공 연 명	엘리자베스 기덕
일시 및 장소	2023. 11. 2.(목) ~ 11. 5.(일) / 목-금 19시 30분   토 15시, 19시   일 15시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공연시간 80분
관 람 료	R석 50,000원, S석 30,000원
관 람 연 령	7세 이상 관람가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안무 정혜진, 안무 김성훈, 극본 경민선, 음악 신창렬, 연출 오경택 무대디자인 오필영, 조명디자인 신호, 의상디자인 민천홍, 영상디자인 김일현
예 매 문 의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11월 2일(목)부터 5일(일)까지 4일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서울시무용단(단장 정혜진)의 <엘리자베스 기덕>을 선보인다.

지난 7월 뉴욕 링컨센터에서 <일무>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서울시무용단의 하반기 신작인 <엘리자베스 기덕>은 1919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며 80여점의 한국 풍속화를 남긴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의 그림과 편지 내용을 모티브로 제작한 창작 무용이다.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총 5회 공연하는 <엘리자베스 기덕>의 입장료는 3만원~5만원이며 9월 27일(수)까지 조기예매 할인(25~30%)을 제공한다. 세종시즌 패키지 구매자 선예매 오픈은 9월 14일(목) 오전 10시, 일반예매 오픈은 오후 2시이다. 공연문의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 ■ 100년 전 그려진 한국을 현대적 한국 춤으로 만나다!



<신부행차, 1921년>

그림: Elizabeth Keith / 그림 제공: 송영달, ㈜도서출판 책과함께

서울시무용단 신작 <엘리자베스 기덕>은 1919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며 80여점의 한국 풍속화를 남기고 1921년에는 서양인 화가 최초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의 그림과 편지 내용을 모티브로 제작한 한국 창작 무용이다.

이번 공연은 그녀가 남긴 그림 중 ‘시골 결혼잔치’, ‘신부행차’, ‘원산 학자와 그 제자들’ 등 총 24점의 그림을 선정하여 1막 7장의 공연으로 재구성했으며 그림과 한국 춤을 통해 100년 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신비로운 한국 풍경과 함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삶 속에서도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한국인의 옛 모습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지난 7월 뉴욕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평단의 호평을 받아 화제가 된 <일무>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혜진(서울시무용단장)과 정상급 현대무용가 김성훈(영국 Akram Khan Company 단원 출신) 두 사람이 공동 안무로 참여해 그림에 담긴 정서를 현대적 감각의 한국 춤으로 풀어낸다. 경민선의 극본으로 작품의 초기 개발을 시작했으며 오경택의 연출을 통해 1막 7장으로 재구성했다. 오필영 무대디자이너가 표현한 두루마리 형상의 무대를 캔버스 삼아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이 서정적인 영상으로 그려내 신비로운 한국의 모습이 담긴 거대한 무대 캔버스를 완성한다. 민천홍이 만든 화려한 색감의 전통 의상과 신창렬 작곡가의 현대적 음악이 어우러진 서울시무용단의 춤을 통해 100년 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과 마주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 ■ 한국식 이름 기덕(奇德)으로 그림의 낙관(落款)을 변경한 푸른 눈의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는 1921년 서양인 화가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을 세 차례 디자인한 바가 있는데, 1934년 첫 번째 썰 제작부터는 한국식 이름인 기덕(奇德)으로 낙관(落款)을 변경하기도 했다. 낙관이 변경되는 과정과 그녀가 언니에게 쓴 편지 내용에는 한국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그녀가 한국을 소재로 그린 작품은 80여 점으로 추정되며 국내를 비롯해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대부분 흑백사진으로 기록된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은 엘리자베스 키스가 남긴 그림 덕분에 화려한 색채의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그녀의 그림을 1막 7장의 한국 춤으로 재구성했고 안무, 무대, 영상, 의상디자인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했다. 정혜진(서울시무용단장)은 엘리자베스 키스를 작품의 소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전 흑백사진 속 조선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다채로운 색감으로 그려진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고 전했다. 이 공연을 통해 “그녀의 그림에서 묘사된 한국의 정서와 민족의 기품을 서울시무용단의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고 덧붙였다.

## ■ 현대적인 한국 무용으로 만나는 100년 전 한국인의 기품

서울시무용단 <엘리자베스 기덕>의 안무는 서울시무용단장 정혜진과 현대무용가 김성훈이 함께 창작한 안무로 구성했다. 정혜진(서울시무용단장)은 “그림에서 묘사된 아름다움을 스틸(Still) 형식의 정적인 안무로 표현함과 동시에 그림 속 인물들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인 무용으로 표현하여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표현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공동 안무로 참여한 김성훈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신비로운 한국을 표현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김성훈은 영국 아크람 칸 컴퍼니(Akram Kahn Dance Company)와 한국의 LDP(Laboratory Dance Project) 무용단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 [붙임 1] <엘리자베스 기덕> 공연 구성

구분	내용
프롤로그	멀리 파도가 휘몰아친다. 그 파도를 보며 절벽을 향해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 키스다.
1장 푸른 눈에 비친 조선의 일상	키스의 푸른 눈 속에 이국의 풍경이 펼쳐진다. 훈장님을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힘든 노동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여인들의 모습. 장기를 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남성들의 모습.
2장 신랑 없는 결혼식	결혼식 행렬은 어느새 음식 냄새로 변한다. 그 행렬은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의 바쁜 노동으로 변한다. 신부로 보이는 여자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다.
3장 사형수들의 행진	신부의 상상 속에 신랑의 안타까운 춤이 펼쳐진다.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머리에 용수를 쓰고 일본 경찰에 끌려나온다. 용수를 쓴 사형수들은 향불 한 줄기가 되어 사라진다.
4장 무당과 영혼의 춤	향불은 영혼이 되어 살아난다. 무당은 그 영혼을 굿상 곁으로 데려와 말을 붙이고 술을 청하고 묶인 몸을 풀어주고 가려진 얼굴을 씻겨준다. 향불로 꿈같은 길을 만들어 준다. 매서운 결심을 하려는 영혼들의 속 풀이에 무당도 구경꾼도 온 세상도 응원한다.
5장 금강산 가는 길	음악이 폭풍처럼 불어 닥친다. 그 음악, 우리를 모두 금강산에 데려간다.. 그 풍경은 금강산 구룡폭포가 되고 금강산 백불이 된다. 백불들이 승무를 춘다.
6장 키스, 기덕이 되다	키스, 금강산의 풍경 속에서 여인과 마주한다. 여인은 키스에게 인사를 건네듯 춤을 춘다. 키스, 그 춤을 함께 추고 싶다. 어색하게 춤을 따라하다 구두를 살포시 벗고 여인의 춤을 따라한다. 금강산에는 온통 어둠이 내린다.
7장 연등놀이	어둠 속에 별이 떠오른다. 사람들이 별빛 같은 연등을 들고 모여들어 연등놀이를 한다. 사람들이 탐돌이를 시작한다. 사람들의 손, 조선 사람들의 손들이 살아난다. 사람들의 춤이 거대한 폭풍과 바람과 절벽을 만든다. 키스, 여인의 초상화에 '키스'낙관을 지우고 다시 쓴다. 그 서명은 '기덕'이다
에필로그	아득히 먼 모르는 세상 앞에 서 있는 키스의 뒷모습. 자막이 떠오른다.

## [붙임 2]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 소개



스코틀랜드 애버딘서 태생으로 1915년 일본에 온 이후 동양의 이색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에 심취하여 동양 각국을 여행하며 그림을 그렸다. 1919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우리의 문화와 일상을 수채화로 그렸다. 1919년 겨울 도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그림을 전시했는데, 이때 신판화 운동에 앞장선 출판인 와타나베 쇼자부로를 만난 이후 목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와타나베 공방에서 목판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직접 에칭과 목판화의 전 과정을 맡기도 했다.

1921년 서양인 화가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1934년에도 열었다. 192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었으며, 현재 세계의 우수한 미술관에서 키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 소재 그림을 가장 많이 남기고 그 작품들로 화가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키스와 한국은 특별한 관계라 할 수 있다.

## [붙임 3] 서울시무용단 소개



예술은 동시대의 고찰(考察)과 정신세계의 반영이며,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座標)를 모토로 1974년 창단되어 예술 단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위해 반복적인 자기 물음과 치열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창작춤'의 산실로 전통춤의 재현, 창작에 이른 넓은 스펙트럼으로 서울시무용단만의 레퍼토리를 통해 한국춤의 우수함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앞장 서고 있다.

[붙임 4] 작품의 모티브가 된 주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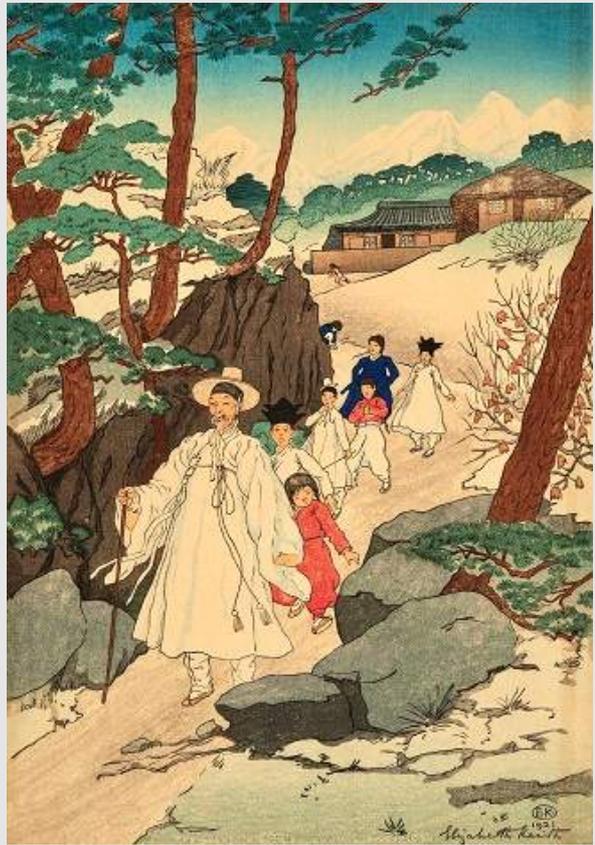
<시골 결혼잔치, 1921년>



<신부행차, 1921년>



<신부, 1938년>



<원산 학자와 그 제자들, 1921년>

그림: Elizabeth Keith

그림 제공: 송영달, (주)도서출판 책과함께

## [붙임 5] 주요 제작진 소개

---



### 정혜진 | 예술감독 · 안무

現 서울시무용단장, 최현춤원 회장, 한국현대춤협회 부회장  
前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대한민국무용대상 총감독, 서울무용제 총감독

#### 주요 안무작

<일무>, <낯-N.O.T>, <감괘>, <동무동락-웨딩보감>, <동무동락-허행초>, <조선 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가문>, <신맛이>, <무애>, <가무극 큰 선비 조광조>, <그 달>, <당신은 누구시길래> 외 다수

---



### 김성훈 | 안무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과 강사  
前 Akram khan 무용단 단원

#### 주요 안무작

<일무>, <그리멘토>, <Position of body>, <Black comed>, <Carcara>, <흙친관계>, <우리는 영웅을 믿지 않는다>, <No film>, <Green eye>, <Pool>, <사군자 생의 계절>, <MINDSEEKER>, <조동> 외 다수

---



### 신창렬 | 작곡 · 음악감독

現 창작국악그룹 '그림' 대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예술감독

#### 주요 작품

<무용극,단오지향>, <소춘대유희>, <환상노정기>, <거인양갈로>, <비비런>, <기기묘묘>, <춘향전쟁>, <바람의회원>, <자라는자라>, <After4>, <하얀나라>, <토픽-서울시립무용단> 외 다수

---



### 오경택 | 연출

#### 주요 작품

연극 <라스트 세션>, <그라운드드>, <킬 미 나우>,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외 다수  
뮤지컬 <작은 아씨들>,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레드북> 외 다수  
무용 <궁:장녹수전>, <낯-N.O.T>, <감괘> 외 다수

---